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2020년 6월 29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8.8만 km ² 	인구 594만 명 (2019기준)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중국과의 협력 증진 
GDP 733억 달러 (2019) 	1인당GDP 12,328달러 (2019) 	통화단위 Manat 	환율(U\$기준) 3.50 (2019)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러시아,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9.9%인 19.5조 m³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7년부터 집권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높은 득표율로 재선,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되며, 강력한 중앙집권 방식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카스피해 및 CIS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종교, 문화, 언어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터키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가스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을 재개하였고,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을 통해 향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가스를 수출할 계획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7 수교 (북한과는 1992. 2. 10)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30,923	19,822	13,111	자동차, 컴퓨터, 사무기기
수입	51	116	10	의류, 기타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90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4.0	2.5	1.5	2.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6.0	11.0	16.0	17.5	15.0
재정수지/GDP	-0.7	-2.0	-2.1	-0.1	-0.6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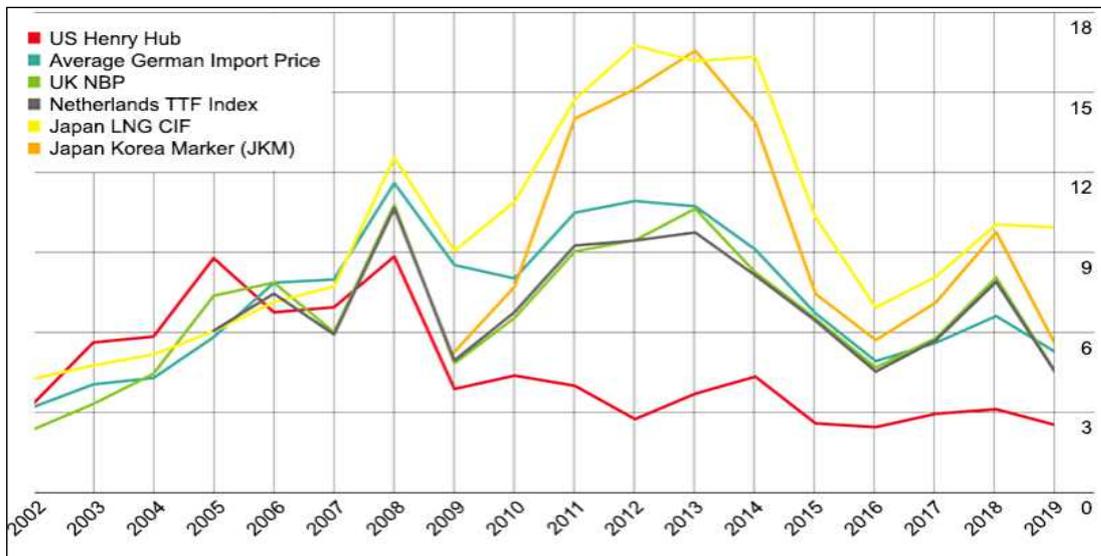
2014년 이후 천연가스 국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경제성장률 둔화

-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2014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와 천연가스 국제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2017년 1.5% 성장에 그쳤으며,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며 수출이 증가하여 2018년 2.5%, 2019년 3.0%의 성장을 기록함.
- 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수출 감소는 소비재, 식료품 등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경제성장률은 2011년에는 10%, 2014년에는 9%를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대 가스 수입국인 중국의 가스 수입 감소로 인해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며 대중국 가스 수출이 다소 증가하여 2.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규모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17년 생산과 수출이 모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8~19년에는 가격 안정과 대중국 수출 증가에 따라 다소 회복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은 2015년 659억 m³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32억 m³, 2017년 587억 m³, 2018년 615억 m³로 감소하였음. 또한 천연가스 수출 규모는 2017년 최저 규모를 기록한 이후 다소 증가하였음.

국내경제

그림 1. 천연가스 국제가격 추이

단위: 달러/MMBtu



자료: <https://www.naturalgasintel.com/>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17.5%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5.0%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의 수입대체정책 추진에 따른 식료품 수입의 감소로 인한 식료품 부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소비재의 부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 축소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17년의 -2%대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0.1%, -0.6%로 감소함.
- 2015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중단 이후 천연가스 수출 규모 감소로 인해 국영 에너지기업으로부터의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1,838	-2,831	-2,081	926	1,091
경상수지/GDP	-4.8	-6.5	-4.1	1.5	1.5
상 품 수 지	3,505	2,661	3,627	7,222	7,542
상 품 수 출	9,582	7,933	7,606	9,573	9,614
상 품 수 입	6,077	5,272	3,979	2,351	2,072
외 환 보 유 액	26,640	25,047	24,911	26,573	24,411
총 외 채	7,797	8,349	9,535	10,368	12,635
총외채잔액/GDP	20.4	19.2	18.6	16.8	17.3
D.S.R.	11.9	14.1	15.1	11.7	13.1

자료: IMF, EIU

2018~19년 상품수출 회복과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기록

- 2018~19년에는 2016~17년에 크게 감소하였던 상품수출이 회복되고 상품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1.5%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16년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이 중단되고 2017년 이란으로의 가스 수출도 중단된 이후 수출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8~19년에는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출액이 증가하였음.
- 상품수입 규모는 식료품 수입대체 정책과 정부의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정부의 외환 통제에 따라 공식환율은 2015년 이후 1달러 당 3.5마나트를 유지하고 있으나, 블랙마켓에서의 환율은 1달러 당 22마나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외채상환능력

양호한 수준의 외채구조 지속

- 2019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113.6%,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7.3%로 안정적인 수준임.
- 2019년 외채상환비율(D.S.R)도 13.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의 2.8%에 불과하며,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1.7개월 규모로 양호한 수준임.

구조적취약성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의존성과 산업다변화 부진

-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80%에 달하여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음.
- 에너지 부문 외에 면화 등의 농업과 섬유산업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다변화 정책의 성과는 미흡함.
- 정부는 섬유산업과 함께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운송물류 인프라 부문 등의 발전을 추진하며 산업다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며 기계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지속

-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향후 중국 경제의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2009년 12월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전체 가스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94.6%의 비중을 점유함. 이처럼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4년의 45.4%에서 2019년에는 78.6%로 크게 증가하였음.
- 러시아는 201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 이후 러시아 가스 수출량이 감소하였음. 또한 2016년에는 러시아 가즈프롬이 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럽 시장으로의 재판매 수익 저하를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여 2019년 가스 수입 재개 이전까지는 양국의 가스 교역이 중단된 바 있음.
- 또한 2009년 말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과 이란의 테헤란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이후 이루어진 이란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7년 초부터 가스 대금 미납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음.¹⁾

1) 이란은 가스관이 건설되어 있지 않은 북부 지역으로의 가스공급을 위해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관을 연결하여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표 1.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출 동향

단위: 십억 m³

구 분	전체	중국	러시아	이란	기타
2009	16.73	0	10.66	5.77	
2010	19.73	3.55	9.68	6.60	
-	-	-	-	-	
2014	41.6	25.5	9.0	6.5	
2015	38.1	27.7	0	7.2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3.1
2016	37.3	29.4	0	6.7	카자흐스탄, 1.1
2017	33.6	31.7	0	0	중동 1.7, 카자흐스탄 0.3
2018	35.2	33.3	0	0	중동 1.9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각 호.

지리적 환경에 따른 취약한 운송 인프라로 낮은 물류경쟁력

-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변국과 연계된 운송 인프라가 미흡하며,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으로 인해 국내의 물류 인프라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국제물류지수에서 160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였음. 특히 국제운송 부문은 136위, 물류경쟁력은 140위로 주변 국가와의 물류 연계가 미흡함.

성장잠재력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9.5조 m³로 전 세계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세계 4위 규모임.
- BP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38.9조 m³), 이란(31.9조 m³), 카타르(24.7조 m³)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3년부터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갈키니쉬 가스전(오스만-남올로텐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세계 주요 천연가스 보유 및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음.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출노선 확보

- 가스관 건설과 장기 가스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가스 수출노선을 구축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말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완공하고, 2012년에는 중국 정부와 2030년까지 연 600억 m³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출망을 구축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2009년 제1차 가스관 완공 후 2010년과 2014년 2·3차 가스관이 추가로 완공되었으며, 현재 4차 가스관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4차 가스관 완공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규모는 2016년 300억 m³에서 2022년 경에는 650억 m³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4차 가스관은 1~3차 가스관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노선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를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며 2022년 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및 TAPI 가스관



자료: <https://ig.ft.com>

성장잠재력

-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던 러시아 가스프롬은 2019년 7월 투르크메니스탄과 2024년까지 5년간 연 55억 m³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14km의 TAPI 가스관은 2015년 12월 착공되었으며, 2020~21년 완공과 2024년 이후 가스 공급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TAPI 가스관은 완공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연 50억m³, 파키스탄과 인도에 각각 연 140억 m³ 등 모두 연 330억 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 ※ TAPI 가스관의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은 완공되었고, 아프가니스탄 구간은 2018년 2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파키스탄 구간은 2020년에 착공될 계획임. 가스관 건설을 위해 2014년 12월 TAPI Pipeline Company(TPCL)가 설립되었으며, Turkmengaz(85% 지분), Afghan Gas Enterprise (5%), 파키스탄의 Inter State Gas Systems (5%), 인도의 GAIL (5%) 등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사회경제 발전 및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

- 2019~25년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2020~25년 대외경제협력 프로그램, 2019~25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 등이 주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수입대체산업 발전, 공공 부문 민영화, 민간 부문 발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 프로그램에는 UN, 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러시아 및 중국 등 주변 주요국과의 협력 지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정부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IT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정책성과

카스피해 항만 개발을 통한 국제운송망 개발과 카스피해 휴양지 건설 등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루마니아 등과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운송망 개설에 합의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4개국은 중앙아시아와 남코카서스, 중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주요 항만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 항만,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항만, 조지아의 포티(Poti) 및 바투미(Batumi) 항만, 루마니아의 콘스탄차(Constanta)²⁾ 항만 간의 물류망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이후 '카스피해-흑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국의 외교부, 교통부,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투르크멘바쉬항, 콘스탄차항, 바쿠항의 항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물류협력과 함께 교역, 투자,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쉬 인근 아자바(Avaza) 지역에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휴양단지를 건설하였음.
- 아자바 지역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워터파크, 요트장, 호텔, 카지노 등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여 카스피해 경제포럼 등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관광 부문을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투자기업에게는 세제 및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하고 조지아와 터키로 이어지는 물류망('Lapis Lazuli' route) 구축 협약이 2017년 11월 관련 국가들 간에 체결되어 추진되고 있음.

국내 물류망 개선 및 주변국과의 연계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도인 아쉬하바드와 카스피해 연안의 항만도시인 투르크멘바쉬, 2대 도시인 투르크메나바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에 아쉬하바드와 투르크멘바쉬를 연결하는, 총연장 544km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고속도로를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 또한 2020년 1월에는 아쉬하바드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인근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640km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착공되었음. 23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2023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카스피해 지역, 아쉬하바드와 투르크메나바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주변국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루마니아어로는 Constanța로 표기되며 콘스탄차로 발음됨.

정책성과

그림 1. 투르크멘바쉬-아쉬하바드-투르크메나바트 고속도로 건설



WTO 읍저버 가입 신청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5월 WTO에 읍저버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20년 1월 정부가 주최한 컨퍼런스(Turkmenist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에서 WTO 가입의 재추진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5월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읍저버 회원국 신청을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3년 타지키스탄의 WTO 가입 이후부터 WTO 가입을 논의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이후 2019년 6월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WTO 가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후 WTO 측과의 가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농업용 토지 장기 임대 허용을 통한 생산 증대 추진

- 2018년 9월의 대통령령 'On further improvement of refo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와 2019년 10월의 대통령령 'On the approval of the volumes of the special agricultural land fund' 등을 발표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이 대통령령들을 통해 특수목적용 농지를 지정하고, 이를 민간 부문에 최대 99년 동안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대통령령에는 임대된 농지에 밀, 면화 등 주요 농작물들이 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농작물의 판매와 농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정치동향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보유

- 2016년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07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의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사회단체는 부재함.
- 여당인 민주당 외에 2012년 설립된 산업기업가당, 2014년 설립된 농업당 등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실질적인 야당은 부재한 상황임.

사회동향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공공 부문의 임금 지불 연체 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도·가스·전력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최근 재정적인 문제로 이를 중단하여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92년부터 국민들에 대한 수도·가스·전력 등 공공 서비스의 무상제공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하여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국민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축소하였는데 이는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16년 초 이후 에너지 국제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 임금 체불 및 인력 감축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다소 악화됨.
- 특히,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공공 부문의 인원감축이나 임금 삭감이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국제경제기구들과의 협력 추진

- ADB가 주도하는 CAREC(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하고 있음.
- ADB의 주도로 원활한 운송,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CAREC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는 CAREC 각료회의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CAREC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관 사업인 TAPI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Turkmenabat-Mary-Ashgabat-Turkmenbashi 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세계은행과는 거시경제 통계 및 금융 부문 발전, EBRD와는 민간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발전, IsDB와는 TAPI 프로젝트, 철도 건설,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러시아와 정치, 경제 협력 지속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 정치, 경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8년 8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준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에 중단되었던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이 2019년에는 재개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는 양국 정부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정부 간 회의(2019년 5월 11차 회의 개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교역 증대와 산업, 금융 및 IT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CIS 및 카스피해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은 제1회 카스피해 경제포럼(2019년 8월)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카스피해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의 대통령, 총리가 참석한 카스피해 포럼에서는 향후 카스피해를 통한 무역, 운송물류, 에너지 및 관광 분야에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음.
- 또한 포럼과 동시에 혁신 기술 제품의 전시회, 국제자동차 전시회 등이 개최되어 제조업 부문의 협력도 추진되었음.
- 준회원국으로 CIS에 참여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과의 에너지 및 운송 등의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에는 CIS 정상회담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쉬하바드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국제관계

유사한 민족, 문화, 언어를 가진 터키와 긴밀한 관계

- 투르크메니스탄은 터키와 민족·종교가 같고 언어가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과 터키는 같은 오구즈계 투르크족으로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언어가 유사한 공통점이 있음.
- 터키는 2019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입상대국이며,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 수출상대국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입에서 터키의 비중은 2014년 28.3%에서 2019년 38.1%로 증가하고 있음.
- 터키 폴리멕스(Polimeks) 등의 건설회사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음.

영세중립국으로 중립 외교정책을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12월 UN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변 강대국인 러시아나 중국과 정치, 안보적인 차원의 협력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나, CIS에는 준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참여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 상환태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19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67억 38만 달러임.
-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840만 달러, 중장기 58억 983만 달러이며 중장기 가운데 50만 달러가 연체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0.01)	6등급(2019.02)
S & P	n/a	n/a
Moody's	n/a	n/a
Fitch	n/a	n/a

OECD는 202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하향 조정

- 2020년 OECD CRE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신뢰성 미흡과 정책에서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등급이 한 단계 하향조정됨.
- 국제신용평가3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노선을 확보하여 성장잠재력을 가짐. 2014년 이후 천연가스 국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2016년과 2017년 러시아 및 이란으로의 가스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
- 지리적 위치와 국토의 80%가 사막 지역인 자연환경에 따라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국내외 물류망이 미흡하고,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수입대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수준임.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의 재정 상황 악화 등에 따라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으로 최근 정부에 대한 여론이 다소 악화됨.
- 2019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89.8%, GDP 대비 총외채잔액 17.3%로 양호한 외채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